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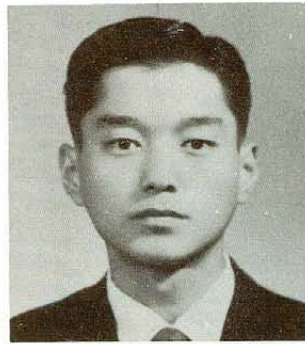
호남지방부 탄생

지방부장에 이 재수 형제

지난 1월 25일 광주지방부에서는 한국 선교부에 3개의 지방부가 탄생됨을 축하하는 130여 성도가 모인 가운데 호남지방부가 탄생되었다. 중앙지방부의 대전지부와 남부지방부의 전주, 광주, 목포지역을 한데 묶은 호남지방부의 탄생은 이 땅이 점점 복음으로 메워지는 산증거이리라.

지방부장으로 지지된 이 재수 형제는 말씀을 통해 해 “호남지방부를 키워서 다시 두 지방부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밑알이 되자”고 했었다. 이 재수 형제는 현재 전남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있다.



이 형제 선교사로

성북지방부 지부서기로 봉사하던 이 우영 형제가 지난 1월 10일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부산지방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어머님만이 비회원인 그의 가족은 그의 장도를 위해 가족모임을 가진 바 있다.

이 해동 형제 신촌지부장으로

신촌지방부의 지방부장으로 이 해동 형제가 지지되었다.

지난 12월 21일 박 재암 형제의 후임으로 신촌지부장의 중책을 맡은 이 형제는 지부장으로 해야 할 일을 “지부의 모든 회원이 가족단위의 복음공부를 시작해서 한 가족이 모두 교회에서 예배하는 지부로 전통을 세우는 일”이라면서 가정복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는 6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중앙 로드 쇼

지난 11월 29일 중앙지방부 상향회 주최의 로드쇼가 서울 동부지방부에서 있었다. 지방대회에서 시상하기로 한 이날 모임에는 7개 지부가 경연에 참가하였었다.

상향회 세미나 개최

중앙지방부 상향회 주최의 세미나가 지난 12월 1일부터 19일 사이의 월, 금요일인 4일간에 걸쳐 서부지방부에서 있었다. 각 지부의 상향회 역원을 대상으로 모임을 가진 동 세미나는 주덕영, 박 중식 형제에 의해서 지도되었는데 세미나의 내용 민속무용, 오락지도, 소창 등이었다.

금 바울 형제 서거

남부 지방부 평의원으로 봉사하던 금 바울 형제가 지난 12월 27일 향년 72세로 세상을 마쳤다.



선교부 구내에 번역 출판부 건물 기공

지난 12월 15일 선교부 구내에서는 태평양지역 번역출판부 책임자 디몬 쿨스 형제와 극동 담당 와다나베 형제 선교부장 내외를 비롯한 성도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번역출판부 건물 기공식이 있었다. 선교부 정문과 농구장 사이의 공터에 세워질 번역출판부 건물은 극동지역 번역출판부 건물로는 처음 세워지는 것으로 한국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자의 번역, 인쇄, 배부 관계의 모든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설비하게 된다. 지하실로 되어있는 1층은 인쇄실, 종이 창고 등으로 구분되며, 2층은 번역을 위한 사무실과 판매부, 그외에 필요한 작업시설로 되어있다. 건물은 5월 중에 착공되어 올해 안으로 준공될 것이다.

남부 상향회 로드 쇼

남부 지방부 상향회 주최의 로드 쇼가 지난 12월 27일 남부 산하 3개 지부(동구, 부산, 대구)의 착관리에 있었다. 물몬경에서 주제를 고르도록 되었던 이날의 모임에서 동구지방부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남부 지방부 주최 노변의 모임

지난 12월 21일 남부 지방부는 서울 노변의 김 산 형제를 초청 “개종과 신앙” 대한 말씀을 듣는 모임을 가졌다. 부산지방부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가진 이날 김 산 형제는 “복음이 주는 축복은 더우기 말일에 회복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은 기도로써만이 가능한 축복”이라고 한바 있었다.



↑ 중앙지방부 역원 세미나

지난 11월 21일부터 3일간 중앙 지방부는 “교회 지침서”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선교부장단과 함께 각부의 지부장단 이상의 역원을 대상으로 하였던 이날의 모임은 평의원의 연구발표와 2개월의 준비 기간을 통하여 의문되는 것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부지부

서부지부 상향회 주최의 성탄 축하 모임이 지난 12월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부지부에서 있었다.

이날 회원들은 “모든 사람이 말일의 복음을 생활화 할 것”을 다짐하는 모임이기도 했다. 사진: 게임에서 ↓



삼청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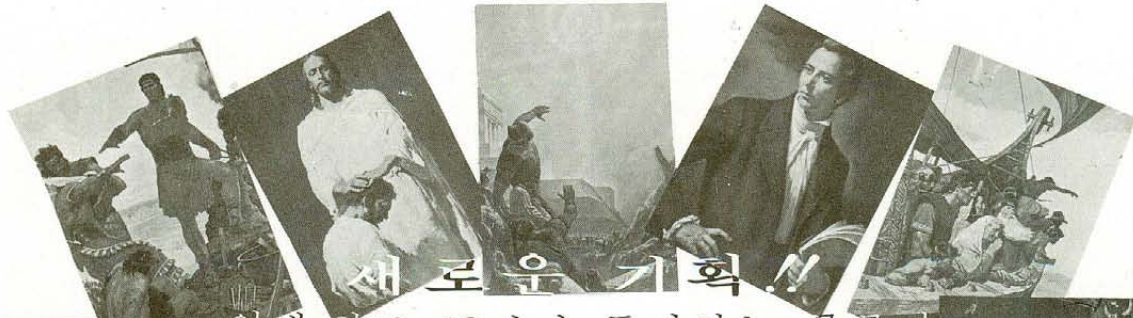
삼청지부는 12월 24일 저녁 유년 주일학교의 “우리집의 자랑”과 요한반의 “또 하나의 기쁨”이란 연극을 공연하였다. 성탄 축하 모임의 일환으로 준비된 이날 120여 회원들은 이 외에도 합창과 빙고 게임, 민속무용의 순서를 가졌다.

영등포 지부대회

지난 12월 28일 영등포지부는 창립 2주년 반을 맞는 지부대회를 영등포 소재 지부에서 가졌다. 지방부장단과 선교부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모임에서 지부장 김창선 형제는 “오늘로 시작되는 1년을 모든 것에서 모범을 만들자”고 서로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었다.

주일학교 칸타타 성향 →

중앙지방부 주일학교 주최의 성탄 축하 칸타타 모임이 지난 12월 23일 오후 6시 동부지부에서 있었다. 각지부에서 분담하여 합창과 극을 준비한 이날의 모임은 다른 어느 때의 성극 보다도 다채롭고 내용이 풍성한 모임이었다. 주일학교 평의원 서원 형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 이 놀라움고도 극적인 모든 요소를 갖춘 이야기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다”고 했다.



새로운 기획!

월색 화보 10장이 들어있는 몰몬경

본문: 고급 인도의 인쇄 · 제본: 포의, 양장, 붉은 도련
 인쇄: 윤셋 · 총 878 페이지 · 값: 150원
 신청: 대계구좌1409, 각지부 선교사

